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日 닛케이지수 급반등에 달러/원 환율 소폭 하락

■ 전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일대비 1.7원 상승한 1,062.9원에 출발하였다. 장 초반 달러화는 결제수요가 유입으로 레벨을 높이며 1,060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보였다.

■ 그러나 오후에는 일본 도요타의 실적 전망치가 높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고 이에 닛케이지수가 급등했다. 여기에 차익실현성으로 유로화까지 강세를 보이며 달러화는 하락압력을 받았다. 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60.5원에 저점을, 1,063.7원에 고점을 기록했고 결국 전일대비 0.3원 내린 1,060.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62.90	1063.70	1060.50	1060.90	1062.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76.64	1080.10	1073.80	1075.25

금일 전망

美 양적완화규모 지속 기대 및 네고물량 유입으로 하락 압력 전망

■ 금일 달러/원 환율은 수확능력시험일을 맞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하였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이 연기될 것이고 양적완화규모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전일대비 0.4원 하락한 1,060.5원에 출발하였다.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출회에 따라 금일 달러화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저점 결제수요와 경계감으로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저점인 1,050원대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 네고 물량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도 금일 달러화의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논의될 유로존 금리인하 여부를 관망하는 움직임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56.00 ~ 106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12.8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5746.88, +128.66p(+0.8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0.0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9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